

보도시점 2026. 5. 29.(금) 배포 시 배포 2026. 5. 29.(금) 14:00

## 청년과 농촌체험마을이 손잡았다 농촌체험의 새로운 모델, 첫걸음을 내딛다!

- 농식품부·청년·농촌체험마을·도협의회 한자리에 모여 협력 다짐
- 청년 아이디어와 농촌의 지역자원을 결합한 체험 콘텐츠 본격 개발 착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5월 29일 충북 옥천군 향수뜰마을에서 ‘청년참여형 소규모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와 협약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을 비롯해 사업에 선정된 전국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 참여 청년, 각 도 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청년 인력을 연계하여 지역의 자원과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도입하였다. 특히, 운영 활성화가 필요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선정된 5개 마을은 ▲강원 홍천 무궁화마을 ▲충북 옥천 향수뜰마을 ▲충남 당진 왕매실마을 ▲경북 칠곡 학수고대마을 ▲제주 소길농촌체험휴양마을이며, 힐링형과 식도락형 등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충북 옥천 향수뜰마을 사무장은 “역량 있는 청년들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체험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기존 체험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도 찾고 싶은 농촌마을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선정된 청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경험 등을 보유한 청년들로 20대가 1명, 30대(30~34세)가 4명이다. 충남 당진 왕매실마을은 로컬 콘텐츠 활용 프로그램 기획, 강원 홍천 무궁화마을은 농촌 지역자원 활용 관광 콘텐츠 기획·운영, 경북 칠곡 학수고대마을은 인문학 등 관련 콘텐츠 개발, 제주 소길리마을은 교육 콘텐츠 기획 및 마을 활동가 관련 경험이 있는 청년, 충북 옥천 향수뜰마을은 농업 관련 창업을 준비 중이며 치유농업·제빵 관련 공부를 하는 청년이 선정되었다. 청년들은 각자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농촌체험마을과 협업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참여 청년들은 SNS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 체험상품 브랜딩 등 청년층의 감각을 접목해 기존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경북 칠곡의 학수고대 마을에 참여하는 청년은 “농촌이 가진 고유한 자원과 이야기를 청년의 시각으로 새롭게 풀어내고 싶었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홍보, 전문가 컨설팅, OTA 플랫폼 연계 판매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주도의 특색 있는 농촌관광 상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하여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농촌마을의 고유한 자원이 만나 농촌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모델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문기 (044-201-1581)
		담당자	사무관	이승우 (044-201-1592)

